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례 12:15

428
2020.11.1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2절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함즐함을 특집 “생각하여 보라”
- 3~5면 정책당회 소식
- 6면 김정형 칼럼
- 7면 목회칼럼
- 8면 공동체 소식

교회일정

- 11/4(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 7,14,21,28(토)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기도회
- 15(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2021년 교회 표어, 10월 23일 열린 정책 당회에서 확정

2021년 교회 표어는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로 정해졌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의 말씀처럼 가정에서 부모 또는 가정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 을 교훈과 경고로 삼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는 말씀을 따라 가족이 신앙교사가 되어 양육하는 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실천될 예정이다. 또한 유유청청에서 발간 하는 교육백서 책자를 활용하여 온 가족이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시니어 세대에 필요한 신앙 훈련 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주님의교회의 온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 양한 실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함즐함을

2021년 준비 정책당회 열려

지난 10월 23일(금) 교회 중예배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021년 교회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 정하는 정책당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당회에서는 2021년 교회 표어가 발표되었고, 각 위원회별 2020년 사역 과 2021년 사역계획 그리고 선택과집중 TFT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 3면

함즐함을

함줄함줄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말씀을 생각하다

여섯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세 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소비,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헌금, 가정, 기도, 기록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독후감도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집중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줄

주님의 서재 ⑥ 말씀을 생각하다

종교개혁과 말씀

10월 25일은 제503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면서 교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시대에 대해 이재철 목사는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회가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심에 둘 것은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가 루터는 외로울수록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낙심하게 될수록 말씀에 더욱 의지했습니다. 시대는 변하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이지웅, 예수전도단, 2014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이 책은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고민과 갈등, 고뇌 속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 성경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성경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귀납적 성경 읽기라는 중요한 흐름을 기반으로 성경 이해와 해석, 적용에 대한 건강한 기초를 세우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내고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리셋 : 말씀으로 돌아갈 용기〉김관선, 두란노서원, 2016

『리셋』은 오랫동안 복음, 예배,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아 보려고, 오직 말씀 속에서만 길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저자가 지금 교회에 초기화되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며 전통과 학습으로 그것만이 진리인양 알고 있던 복음, 예배, 교회, 가정에 대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책이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리셋(reset), 즉 초기화를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었던 파일이 제자리를 잡곤 한다. 저자의 진단처럼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리셋이다. 초기화되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과연 나의 신앙은 말씀 안에 있는가? 복음, 예배, 교회, 가정을 말씀으로 리셋하자.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존 파이퍼, 팀 켈러, D. A. 카슨 외 / 전의우, 생명의말씀사, 2020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은혜의 진리’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완전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 한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정치성향...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과 방종의 속박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서는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 주최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여했던 아홉 명의 신학자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혼란스러웠던 갈라디아 교회와 지금의 교회 상황이 다르지 않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주요 교재로 갈라디아서를 활용한 점을 생각할 때, 건강한 신학자들의 통찰과 함께 갈라디아서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대면 모임이 줄어들면서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 더욱 절실했던 오늘날,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 모두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안겨줄 것이다.



책 읽어주는 부모 ⑥ 집중력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집중력이란 우리들이 무엇이든 행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또는 보고 있는 것에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모든 정신을 하나의 일이나 행위에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나 행위에 관심이 높을수록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누구나 집중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강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책상에서 책을 펴놓고 책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일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해요소들로 집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내외적인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정기간 프로그램 시행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특히 책을 끝까지 읽고,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기 능력도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읽기능력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공격성을 나타낸 아이들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고 산만한 아이들도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하는 아이들이 독서 프로그램 진행 후 회차가 거둬들수록 욕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 금지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후렴구나 도입부에 반복되는 멜로디로 인해 한번 들으면 계속 입에 맴도는 곡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한하고 집중력을 위해 백색 소음, 명상 음악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자기 스스로 집중력을 제어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합니다.

재미있고 보기 편한 책은 혼자서 읽기 어렵지 않지만 조금 길거나 생각을 해야 할 책은 부모가 같이 책을 읽어주면 집중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속성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 어떤 집중력 훈련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소식 | 2021 정책당회

뉴노멀시대 맞아, 2021년 정책당회 개최

지난 10월 23일(금) 교회 중예배실에서, 2021년 교회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책당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당회원 및 은퇴장로, 주요 종직자가 참여한 이날 정책당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2020년 사역 결과와 2021년 사역계획, 그리고 2020년 6~8월에 수행된 사역선택과집중TFT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함줄함울에서는 정책당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해 소개한다.

함줄함울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원한 이래 전 세계로 전파되어 팬데믹 상황을 낳았으며, 2020년 1월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면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를 고착시켰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출석 인원의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주님의 교회 명물이었던 국수의 제공도 중단되었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10월 하순 들어 확산세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이동금지령을 내리는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강제력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비대면 상황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어, 정책당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2021년 교회 표어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정책당회에서는 2021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족’으로 보아, 2021년의 교회 표어를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로 정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2:10)의 말씀처럼 가정에서 부모 또는 가정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교훈과 경고로 삼고,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는 말씀을 따라 가족이 신앙교사가 되어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백서 발간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유유청청을 중심으로 교육백서를 발간하여 온 가족이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5-7)라는 말씀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성도들의 양육 훈련과정을 강화하고, 시니어 세대에 필요한 신앙 훈련 과정을 기획하여 주님의교회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목회의 중점

2021년 목회의 중점은 가정에서의 다음세대 교육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양육훈련과정의 강화, 실버세대의 양육 활성화에 둔다.

가정에서의 다음세대 교육

가정에서의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백서> 책자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온가족이 신앙의 교사가 되게 하려면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지 않아 교회 차원에서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유유청청 각 숲에서 담당하여 인도, 대표기도, 특송, 성경봉독 등등 해당 숲의 자녀와 부모, 조부모가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교 본문을 단막극, 합창, 뮤지컬 등을 통해 쉽게 보여줌으로써 설교시간을 줄이고 해당 숲의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양육클래스 개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하여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돕고자 시작된 ‘온라인 양육클래스’도 여러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강의가 1인 강사에 의해 성경 중심으로 일방향 강의라면, 2~3인의 강사가 콜라보 강의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강의와 토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긴급하게 영상촬영용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전자칠판 등 음향 영상 장비를 확충하며, 강의 편집 담당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실버세대 양육의 강화

실버세대 양육의 하나로 65~80세 성도 등을 대상으로 한 노년교육과정이 검토되었다. 노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노년세대 교회교육은 총 4학기로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매 학기는 8주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한 학기 8주 동안은 영성과 비전 지성 건강 관계 영향력의 6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 강의는 2시간으로 찬양과 묵상 말씀 활동 기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또 한 기수에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선교학교

이와 함께 시니어선교학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니어선교학교는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시니어들(40~80세대)을 위한 선교학교로, 보내는 선교, 나가는 선교, 국내 외국인 선교 등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헌신과 지원을 안내하며, 선교의 성서적 이해, 선교와 타문화, 전문인 선교,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선교사의 영성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6

‘준비찬송’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준비찬송 ⇒ 사용불가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결단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을 성도의 바른 자세로 알고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의 생활이 습관화 되다 보니 때때로 찬송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준비찬송”이라는 말에서 찾아보게 된다. 교회에서 “다같이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앞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시간을 떼우기 위한 수단이나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준비찬송”이라는 용어는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울 정리

교회 소식 | 2021 정책당회

2021년의 주요 예정사항

목양위원회

예배분과위원회는 일단 비대면 상황에서도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예년과 같은 예배준비를 진행하되, 비대면예배로 전환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악분과위원회에서는 각 찬양대의 정원을 약 10% 축소운영하며 신입대원 모집을 보류하고, 찬양대 가운데 개인지급과 자비구입 방식으로 전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한 무보수 봉사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그룹분과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한 목회적 돌봄 방법을 연구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겨자씨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1사역 캠페인을 위한 각 부서안내 브로셔를 제작할 예정이다. 양육분과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상황에 맞춘 온라인 강좌를 준비하며, 큐티 공개강좌를 통해 큐티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새가족 교육은 되도록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넓은 공간 확보와 방역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봉사분과위원회에서는 도서실과 1층 서점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성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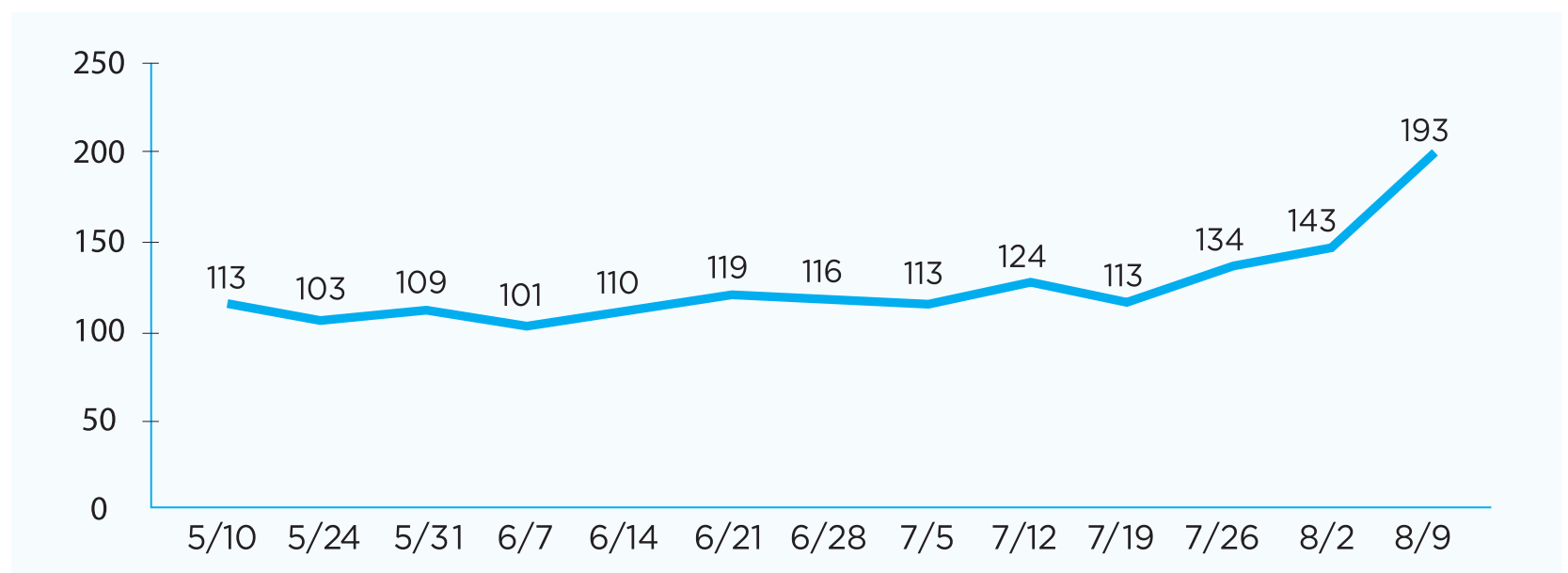
교육위원회

교회학교의 비대면 교육이 계속됨에 따라 유유청청 교육백서를 발간하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지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유청청 교육백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담고 있어 다음세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예배지 등 소책자를 개발할 예정이며,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시범학습, 절기 묵상집 발간(사순절, 대림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복음의 역사 교육을 위해 국내 선교유적지를 방문하여 미니다큐시리즈를 제작, 온라인 한국교회 역사교육 자료로 삼고, 지역 교회 교육지도자 모임 등을 통한 지역 내 교회교육 평준화 방안 연구 및 언택트 시대 대응 교육목회 전략 논의를 통해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선교구제위원회

국내선교에서는 도시선교를 강화하여, 도시선교와 농어촌선교가 균형을 이루는 사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교회 부교역자 출신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을 발굴하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를 시행하여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선교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예배 재개 후 청년예배 출석 인원



전문위원회

그동안 발행해온 교회신문 <함글함글>의 역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소통의 창구 개설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역사자료관리부에서는 지속적인 교회 역사자료 및 문서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부설기관

청소년사역원에서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정신학원과의 연계사역(전도와 성장, 소통)의 확장과 활성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회의 방향성에 맞춘 새로운 사역 연구 및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며, 언택트(Untact) 시대의 청소년사역의 새로운 방향성과 사역 내용을 점검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뷰티풀페어런팅센터에서는 봄 가을에 아름다운부모학교를 수료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예배를 훈련하는 5주 과정의 가정예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주일에배시간 변경 논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됨에 따라, 역으로 예배실 공간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청년부가 사용하고 있는 중예배실 공간은 현재 138명(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좌석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청년부의 출석 인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년부가 대예배실을 예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장년 예배시간을 조정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정책당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기존 예배시간의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역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안
예배시간	1부 예배 7:30	1부 예배 7:00
	2부 예배 9:30	2부 예배 9:00
	3부 예배 11:30	3부 예배 11:00
	4부 예배 14:00	4부 예배 13:00
	청년예배 13:30 (중예배실)	청년예배 14:30

교회 소식 | 2021 정책당회

사역 선택과 집중 TFT

한편 이번 정책당회에서는 지난 6~8월에 진행되었던 사역 선택과 집중 TFT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 보고 내용을 요약한다.

사역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사역’은 ‘남을 써서 일을 시킴’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주님을 위한 봉사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흔히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 의미의 사역은 교회 현장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목회’는 목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행정관리’는 교역자와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관리, ‘사역’은 주로 자원에 의한 교인들로 운영되는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

주님의교회가 설립된 초기에는 자비량으로 출발했던 사역의 정신이 합리적 예산 편성과 관리 개념에 흡수되면서 점차 교회 예산 의존적으로 바뀌어졌고, 이후 30년간 구체적 지향 없이 사역 조직이 확대되어 왔음에 따른 반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디어 환경 및 국가 복지 영역의 확대 등 사회 환경 변화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사회적 재난에 의해 목회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역의 선택과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었다.

사역의 선택과 집중 TFT의 발족과 수행 과정

이에 따라 2020년 6월 김학수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장로 4명과 교역자 4명을 위원, 안수집사 3명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TFT가 사역의 선택과 집중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식 조직으로 발족하여 8월까지 활동했다. TFT는 교회 정체성과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시행 방향을 도출하고, 사역조직 개편에 대해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과 평가 제도를 제안하며, 개별 사역부서에 대한 진단평가 작업을 통해 사역 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교회의 미래상

이 과정에서 교회 내에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교회의 미래상과 시행 방향을 “전 교인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에 두기로 하였다. 이는 진정한 교회의 선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근의 신학적 개념인 ‘선교적 교회’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련으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선교적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적 직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신학적 개념이라는 점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유유청정과 가정에 집중하는 주님의교회의 나아갈 길과도 완전히 합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념으로 인용되었다.

단·중·장기 미션

이와 같은 교회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미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다음세대 교육 및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제자화 시스템 연구 및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적으로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을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선교적 교회의 성

공적 모델을 교회에서 운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런 교회의 전망에 공감, 동참하는 인접교회나 지방 미자립교회들에게 주님의교회가 구축한 교육과 양육 시스템을 포함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허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역의 진단평가 체계

TFT는 사역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배경 정보 및 교회의 미래상과 단·중·장기적인 지향 및 전략을 도출한 후, 실천적으로 사역조직 개편에 대해 실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치 실현, 상황 대응, 사역 본질 등 3가지 관점의 10가지 문항의 종합 진단평가표를 개발했다. 이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필수성 > 상황성 > 가치성 > 이관 가능성” 등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진단평가표를 개발 교차검증을 시행하여, 1차로 개발되었던 진단평가표 및 분석 방법을 보정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여 <사역진단평가키트>를 개발했다.

당회원 시행 사역의 진단평가 결과

2020년 9월 4일 담임목사가 참석한 결과 보고회의에서 <사역진단평가키트>를 이용, 모든 당회원이 개별 사역 단위를 진단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1차 자료로 삼기로 결정함에 따라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목사 14명, 장로 19명 등 총 33명이 참여한 진단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로 교육과 양육 부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1그룹에 포함되었으며, 교회 공간과 모임을 전제로 하거나 교회의 본질과 달라 전환이 필요한 외부 사역들이 4그룹에 포함되는 1차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정책적 제언

사역의 진단과 평가 시범작업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방향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야 할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과 훈련 부문에 대한 집중과 확대 및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었다. 성도 모두가 가정과 직장, 사회 등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다음세대와 가정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 및 노년층에 대해서도 ‘사명자수준으로 신앙의 깊이와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계층별로 다양하게 출몰하는 뉴미디어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교인 통합과 교육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미디어 정책 입안과 물리적 환경 구축, 관련 사역자 및 전문인력 보충과 교육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물리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교인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세련된 찬양, 음식, 서비스에 만족하는 수혜자인 신앙 소비자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와 반성을 바탕으로, 교회를 신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헌신의 가치와 신앙 훈련을 받는 곳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회의 공적 사역과 성도의 자발적 사역을 구분하고, 자발적 사역은 되도록 자비량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회의 여건과 역량에 비추어 교회의 중점 사역 외의 대외 사역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 역량과 자원을 주님의교회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신학 칼럼 |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상의 재구성: 문명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미학

교회, 세상 향해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다가가야

2020년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오늘날 인류 문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기후 변화가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야생동물에게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고, 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토록 순식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시화된 오늘의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오직 인류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안적인 문명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의 사태로 인해 겪는 많은 불편함 때문에 과거의 일상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일상을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상화'이다. 전염성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서로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수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고집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과거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서로의 고유한 권리를 침범했던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한 공간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고유한 정체성과 개성을 갖고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삶의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쪽방촌에 다닥다닥 모여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적정한 안전공간이 보장된 쾌적한 거주 시설을 마련해 주는 일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공간을 보장해 주는 일, 그리고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별과 배척을 받아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 모두 필요하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당연히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활 속 안전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일상의 모습과 관련해서 조금 천천히 걷는 삶, 조금 느리게 사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말하자면, 각자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분주한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하며 스스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원치 않지만 분주한 삶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해 주고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로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에 없이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기후 변화로 촉발된 인류 문명의 위기, 지구촌 생태계 전체의 위기다. 아마도 우리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보다 훨씬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소



불편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일상에서부터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한국교회도 스스로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교적 헌신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그러한 선한 마음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이웃의 고유한 권리를 침범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 우리의 이상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성급하게 강요하기보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설득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받고 싶듯이, 교회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교 활동의 중단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육신적 선교의 충실한 실천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교회는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이 결국 승리를 얻는다'는 옛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재앙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좁은 의미의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품는 우주적 신앙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우주적 신앙과 소망 아래 교회 안팎의 선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며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다.

김정형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이 글은 《한국기독교》 9월 17일자에 수록된 '코로나19 시대' 특집 중 하나인 김정형 교수의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재수록한 것입니다.

목회 칼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9월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하루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 감춰진 함의
를 담은 말씀들이 많아 초대 교부인
클레멘트는 이 요한복음을 두고 ‘가
장 영적인 복음서’라 말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서문 격인 1장을 보내
고 나면 바로 2장부터 예수님께서 사
역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역과 이적
의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문중에 결혼식이 있
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북
쪽으로 15리(약6.8km, 도보로 2시간
거리)떨어진 가나라는 마을에 제자
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 결
혼식 연회 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
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
혼식에서 가장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예수
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
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알리
며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어머
니 마리아에게 ‘이것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당신의 때가 아직 이
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물을 포도주로, 그것도 최상급 포도
주로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 이적 이야기를 읽으며
어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당시 어떤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으셨
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 들었던 것이 포도주가 오랜 시
간 오크통에서 숙성된 포도주도 좋
지만 이제 막 갓 담근 보졸레 누보 같

은 포도주도 맛있는 것처럼 삶의 경
륜과 신학적 깊이가 아직 완숙하지
않은 그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
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당시 저 역시도 이제
막 신학과 사역의 걸음을 떼고 있던
차였기에 매순간 때에 어울리는 맛
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포도
주가 점점 익어가며 더 깊은 맛을 내
는 것처럼, 사람 역시 익어가며 더 무
게감이 있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
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당시
에 했었는데, 각 사람은 물론이거니
와 이 땅의 교회 역시 해를 거듭해가
며 더 깊은 맛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칼뱅을 제대로
진실하게 따른다면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다.

칼뱅 그 자신에게
순종하지 말고
칼뱅이 주인으로 섬긴
그 분을 따르는 길이다.”

- 칼 바르트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올 한해는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뉴노멀(New normal)
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어둡고 막막한 길을 더듬
으며 좌충우돌하는 동안 시간은 속
절 없이 흘러 어느새 만추가 되어 그
가운데 종교개혁일(10/31)을 맞이하
였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이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그
리스도(Sola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a Deo Gloria)이라는 기독교
의 기본진리를 확인하며 개혁에 생
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된 교
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주장하
며 일회적인 개혁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잠식한지 수개월
이 되어가는 요즘, 우리 역시 다시 한
번 이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삶에 물
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변하
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
니다. 여전히 교회 안팎으로 산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로 돌아가 순종하고 다시 한 번 삶의
자리를 성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소소한 개
혁들을 일으키며 살아가게 될 때, 굳
이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길들이 계속
해서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박주영 목사

독자 투고

끄트머리 촛불

쉬임없이 흘린 눈물
떨어지고 굳어져서
작고 두툼한 초로 남아
그 굳어진 촛물까지도
녹여서 비추이기를
바랍니다.

키 크다고 꺼짱대고
잘 탄다고 우쭐대다
바람을 맞고 보니
오그라진 밑둥만 남아
불이 꺼지지 않기만을
빌어봅니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사그라지지 않기를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위하여 두 손을
모아봅니다.

이수영 집사 / 5교구



교회 소식

〈리브 어 라이프(Live a life)〉 음원 발표

주님의교회의 7대 미션이 담긴 청소년숲의 주제곡이 정식음원으로 발표되었다. 김화수 담임목사가 작사하였고, 청소년숲 양기훈 전도사가 작곡하였다. 음원은 벅스, 멜론 등의 음원사이트에서 'Live a life' 또는 '주님의교회 청소년 숲'으로 검색하여 들을 수 있다.

함즐함울

교계 소식

온라인 예배, 새로운 디지털 문법 필요

문화선교연구원 2020 온택트 문화포럼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서는 10월 29일 보도한 기사에서 "온라인 교회는 단지 기존 예배를 스트리밍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예측에 이어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도 3~4년 정도 걸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교회의 71%가 대면예배를 재개했지만 그 가운데 58%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출석률이 절반 이하'라고 응답했다. 최근 수도권 교회가 예배실 좌석 30% 이내에 한해 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역시나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목회자들의 설명이다.

미암교회 정우 목사는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다시 현장예배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도 "대면예배가 시작됐다고 해서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제 온라인 교회를 부수적인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신학계와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더 나아가 온라인 교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접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문화선교연구원(원장·백광훈)이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를 주제로 개최한 2020 온택트 문화포럼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전환 속에서 온라인의 문법에 맞는 교회됨과 제자도의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백광훈 원장은 '디지털 컨택트 시대,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라'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념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요구하는 만큼 온라인 예배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고 설교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 예배를 스트리밍 하는 것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온라인 설교는 20~30분 사이가 적당하며,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줌(ZOOM)과 같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코이노니아 적극 활용 △온라인 교회 내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그룹 모임 구축 △교회학교 예배 및 반별 교육, 디지털 콘텐츠 확보 등 오프라인 환경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오프라인 교회의 연장이 아니라 교회됨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백 원장은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예배,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소통 방식과 공동체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면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기술의 진보는 온라인 세레나 온라인 성찬 같은 논쟁적인 예전 방식을 기독교 제자도의 표현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과 권위에 매이지 않는 세대에게 디지털 공간은 기독교 제자도 실천의 혁신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공보〉 2020. 10. 29 기사에서 발췌

알립니다

함즐함울 신춘문에 공모

함즐함울에서 제1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개인 미디어 시대, 모든 생활과 소통은 영상과 같은 감각적 미디어와 카톡 식의 일회성 텍스트에 담겨질 뿐,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뜬금 없이, 썸표 하나를 찍는 데에도 고민하던 깊이 있는 문학의 공간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청년들의 산실이었던 문예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표현의 언어를 정갈하게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

- 시: 3편
- 수필: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 간증: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접수 마감

- 2020년 12월 10일 24:00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1년 함즐함울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보낼 곳

- hamletter@daum.net
-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보출판부

알립니다

1. 교구연합 수요기도회(주관:6교구)

일시: 11/4(수) 오후 7:20~9:00 대면배설

2.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기도회

주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시: 11/7, 14, 21, 28 매주(토) 오전 6:30

*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임경순 목사(010.8466.0605)

3. 주일 설교 3분 메시지

11월 첫째 주일(11/1)부터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메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됩니다.